

고대 이집트의 글라이더

옛사람들의 하늘에 대한 집념을 본다

옛날 사람들이라고 하늘을 날고 싶은 생각이 없었을까? 아니 항공기가 발달한 지금보다도 더 간절했을까도 모른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의 비행을 위한 연구와 그 업적을 찾아 보는 시리즈를 마련하고 그 첫회를 보내는 바이다.
(면집자주)

옛날 비행에 대한 기록

고대의 토목 건축 가운데에서 가장 현대인이 놀랄만한 것은 두 말할 것도 없이 이집트의 피라밋이다. 그러나 고대인들이 비행기와 같은 고도의 기술을 개발했는지에 관해서는 일단 고개를 가우뚱 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고대문명만을 연구하고 있는 전문 고고학자들 간에는 고대인들이 비행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를 여러 곳에서 단편적으로 발견하고 그것들을 조립 수합하여 체계화 하고 있다.

가령 고대문명의 발상지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연구에서 바비로니아의 할카사라는 옛 기록 가운데 “비행기술은 생명을 구하는 귀중한 것으로 비행장치를 조작하는 것은 큰 특권”이라는 구절이 있어 이때 이미 어떤 종류의 비행체가 만들어졌든 하다는 것이다.

이런 여러 연구 가운데 영국의 윌리엄 다이체스라는 연구가는 이

집트인들이 문자로 기록을 남기지는 않았지만 비행체에 대한 비밀한 메세지를 남겨 놓은 듯하다고 말하며 우선 대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관계자료들은 20년간이나 끈기있게 조사한 결과 이미 5천년 전에 이집트인들이 그라이더를 만들어 하늘을 비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집트의 고대 분묘에 들어가 벽화나 항아리등에 그려진 그림이나 조각을 보다가 어떤 그림들은 이것이 무슨 설계도가 아닐까하는 의문을 품고 다시 더 연구를 거듭했다.

이집트인이 만든 글라이더 발견

다이체스트씨는 설계도라고 생각되는 여러 그림을 정확하게 탁본형식으로 묘사하여 이것을 가위로 오려내어 접었다 폈다하면서 여러가지로 짝을 맞추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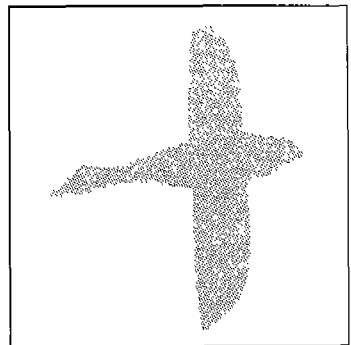
그런 어느 날 어린이용의 조립식 장난감 같은 그림의 종이 딱 맞게 되었다. 그레 놓고 보니 그것은 분명히 새 모양을 한 비행체의 일종이 틀림없었으며 실제로 날려보았더니 신기하게도 잘 날라 사뿐히 내려 앉았다.

그는 다시 고대 이집트에 글라이더가 실재했었다는 것을 증명하

기 위하여 더욱 연구에 몰두했다. 먼저 투성이의 대영박물관 미정리 자료실을 비롯하여 사방의 박물관을 점검했다.

그런 노력의 결과로 고대 이집트의 비행체로 보이는 몇가지의 설계도를 찾아 내고 그것을 기초로 축소모형을 여러가지 만들어 본 결과 “하늘을 나는 기계”가 완성되었다. 개중에는 잘 날오는 것도 있고 전혀 날지 않는 것도 있었다. 그런 것은 실패작에 속하는 것들이라고 판단 되었다.

다이체스씨의 설에 의하면 고대 이집트에서 만든 글라이더의 소재는 타피루스라는 방동사니과 식물의 줄기 섬유로 만든 것으로 추정했으며 전체적으로 보아 별로 날씬하지 못한 모습이며 성능도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상승기류를 탄다면 꽤 높이 날아 오르고



다이체스씨가 그려서 맞춘 글라이더의 모양

또 멀리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고대 이집트 글라이더의 실물은 날개 길이가 18m 가량이고 높은 벼랑위나 피라밋 꼭대기에서 글라이더를 띄워 공중을 활공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기류를 잘 타면 수 Km를 날아 갔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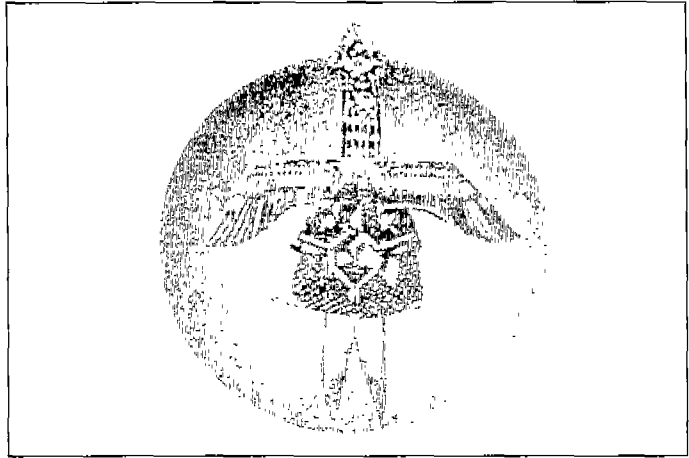
다이체스씨의 가설에 의하면 이런 글라이더 비행은 고대 이집트의 왕후 장상 사이에 유행한 스포츠의 일종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그 증거로 발목을 접처거나 다리 뼈가 상하는 외에 전신에 상처를 입고 죽었다는 왕이나 왕족, 귀족 장상들의 기록이 의외로 많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런 가설이나 주장 또는 추정을 입증할만한 유물이 최근의 사적지 발굴에서 실제로 글라이더 비슷한 비행에 쓰인 물체가 나오고 있는데 이쪽은 다이체스씨가 그린것보다 날씬하게 생겼다.

발굴된 모형

1969년 이집트의 고고학자 히리르 멧시아 교수가 카이로 박물관의 지하실에서 비공개 미정리 소장품을 정리하던 중에 “새를 본뜬 물체”라고 표시된 상자에서 제 6347호라는 비행체와 꼭 닮은 것을 발견했는데 누가 보더라도 현대의 항공기와 아주 비슷한 것이었다.

비행가능한 글라이더의 모형이 2300년 전에 만들어져 이집트 왕의 능에 묻혀 있었고 그것이 지금에 와서야 발견 되었다는데 대해 학계를 놀라게 했다.



발견된 비행체 모형의 상상도

이에 따라 이집트 정부는 전문가로 된 기술조사팀으로 하여금 철저히 연구하도록 했는데 그 모형은 매우 가벼운 이집트 무화과 나무로 만들어져 모형의 무게는 겨우 31.5g, 날개 길이 17.8cm, 전장 14cm 정도의 작은 것이지만 연구 결과 틀림없이 글라이더의 모형이고 날려 보니 어김없이 날아가는 것을 여러 사람이 보았다. 그리고 현대의 항공기 기술자들이 설계때 응용하는 원리들을 그대로 갖추었다는 사실도 규명했다.

그것은 모형을 날려 보면 우아하게 날아갈 뿐 아니라 착지할 때도 사뿐이 내려 앉는 등 현대의 항공기술이라도 어려운 부분을 충분히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옛 사람들의 지혜에 혀를 내어 들었다.

또한 일부 연구가들은 이 모형이 단순한 무동력의 글라이더가 아니라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문가팀들의 연구

그것은 꼬리날개 밑에 무엇인가 붙어 있던 자리가 있고 오랜 세월을 지나는 동안 거기에 장치되었던 어떤 부분이 떨어져 나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어쩌면 이 부분에 무슨 추진장치 같은 것이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하고 있다.

물론 이런 견해를 주장하는데 대하여 반대자가 없는 것도 아니다.

반대 의견인 사람들은 글라이더가 아니라 단순한 장난감에 불과하거나 풍향계의 장식으로 쓰인 것일지도 모른다고 하며 항공역학적 특성을 지닌 것은 어쩌면 우연의 일치이거나 현대의 학자들이 너무 과대 평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옛 이집트인들은 신전이나 선박, 전차(戰車) 같은 것을 만들 때 축소된 모형을 만들고 그런 모형이 여러 왕후에서 출토된 예로 보아 이것은 비행체, 그중에도 글라이더의 모형이 틀림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날개의 모양을 자세히 보고 있으면 지금

의 초음속 여객기 콩코드와 날개와 비슷한 느낌이 든다.

여하튼 인간은 천둥, 번개, 홍수, 가뭄같은 자연현상에 대하여 위경의 염을 지니고 그런 현상이 신의 조화라고 믿는 한편 끝없이 펼쳐져 있는 창공을 새와 같이 훨훨 날아보고 싶은 유혹에도 끌렸을 것은 틀림없다.

새모양의 나무제품 발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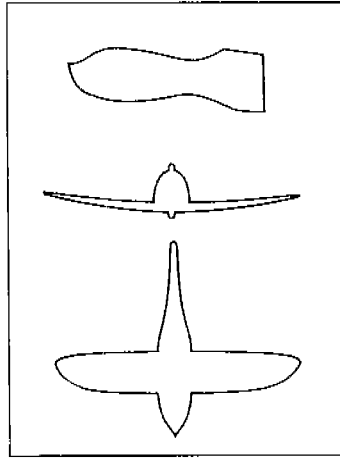
옛날 사람들중 문자가 발명되기 이전의 시기에 살았던 사람 가운데도 분명히 머리가 비상한 사람은 있었을 것이다. 피타고라스의 정의 같은 수학이 지금까지 전해져 원리로 통용되는 것은 문자가 있어 그것을 기록으로 남겼기 때문이다.

고대 이집트의 문명이 어느 정도였는가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작자들이 경탄하는 바이고 아울러 당시의 고도 문명에 대해 어느 정도의 평가는 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이체스트씨 말고도 프랑스의 한 고미술품 고대 공예품 연구자인 아킬드봉씨라는 사람은 대학의 교수도 아니고 그렇다고 직업적인 학자도 아니지만 어릴 때부터 골동품에 흥미를 가지고 여러모로 자기 나름의 추측과 공부를 하던 중 이집트 관련의 문헌을 연구하는 고고학자의 조수로 들어가 역시 박물관의 미정리 수집품의 정리를 맡게 되었는데 그는 진짜 나무로 만든 갈매기 모양의 물체를 발견했고 이것을 고고학자인 선생에게 보인 결과 앞에서 다이체스트씨가 말한 글라이더와 같다고 결론 짓고 다시 찾아 보았다는 것

이다.

얼마동안 잠동사니 가운데를 헤집은 결과 비슷한 새 모양의 모형 같은 것을 여러개 발견했는데 그것들은 종이비행기 날리듯이 날려



고대 글라이더 모형의 3면도

보면 이상하게도 잘 날아가고 또 곤두박질하는 일이 없이 땅에 내려 앉는 것을 발견하고 이것이야말로 어김없는 글라이더의 모형이라고 결론 지었다.

그런데 묘한 것은 꼬리 부분에 지금의 수직 꼬리날개와 비슷한 수직으로 된 한대기가 달려 있으며 떨어져 나간 것도 붙어 있던 자국만은 남아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 더욱 신빙성을 더해 주었다.

이러한 여러가지 증거로 미루어 고대 이집트에 실제로 비행한 글라이더가 있었다는 추측은 이제 현실적으로 지워질 수 없을 지경이 되었다.

이로 미루어 다음과 같이 유추 해석할 수가 있게 된다.

그렇다면 어떤 호사가가 비행 연구를 시작하고 그런이의 연구와 기술을 집대성하여 글라이더까지 발전했을 가능성은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하여 하늘을 날 수 있게 만든 것을 왕에게 진상하고 왕은 이것을 받아 시험해 본 뒤 신기하게 여겨 더욱 개량 발전시키도록 재정지원을 하여 기술이 크게 발달한 것이 틀림없다.

그렇게하여 만들어진 글라이더가 이집트의 왕후장상 사이에 스포츠로 유행하였고 그 왕들의 무덤에 모형의 형태로 합장 되었다라도 우스울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만 그러한 유물이 적절한 기록이 없이 그대로 부장품으로 묻혀 있다가 발굴된 뒤에도 그대로 묻혀 있었다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다.

그리고 박물관 소장 예비품 가운데서 이런 것을 찾아 내는 그들 학자들의 노력에 대하여 경의를 표할 따름이다.

등산가들이 산에 왜 오르느냐 물으면 “산이 거기 있기 때문에 오른다”고 대답하는 말과 같이 옛날 사람들도 푸르고 높은 하늘이 거기 있으니까 올라가 보고 싶고 날고 싶어 있는 지혜를 다 짜 내었을 가능성만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